



사시나무의 순간,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

An aspen moment, and prayer that heals the world

린다 콜러(Linda Kohler)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1년 11월 16일

나는 바람이 그 고유의, 일종의 희미한 휘익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생각해온 것 같다. 그런데 한 일년 전쯤, 록키 산맥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상쾌한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과 조용함과 장관에 흠뻑 취해 있었을 때, 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수백 개의 사시나무의 나뭇잎들이 서로를 비비는-수백, 또는 수천의 각각 별 것 아닌 접촉에 의해 - 나는 소리라는 사실을 언뜻 깨달았다. 그것이 모두 모여 우리가 바람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접촉을 하며 지낸다. 하나의 접촉을 따로 놓고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일생을 통해 불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서로의 은혜로운 접촉으로 이끄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 예수님은 한 번, 바람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비교하신 적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나무들 사이를 살랑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지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는 지 전혀 알지 못한다”(요한복음 3 장 7,8 절,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 이 **영**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두려움과 원한 그리고 냉담과 같은 먼지와 너저분한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행동에 나서도록 각성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보통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접촉하도록 한다.

내가 그 나뭇잎들을 스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하나하나의 나뭇잎이 각각 하나의 가느다란 가지로 나무와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지만, 다같이 함께 바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미세한 또는 막강한 리듬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그런 나뭇잎들과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움직이며,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킨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요한복음 4 장 24 절)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은 보편적이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영**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특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 세상에 큰 도움과 치유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간단하면서도 막강한 기도이다.

나에게,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영**의 움직임에 대해 나의 생각을 여는 것과 같다. 내가 결코 직접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나를 각성시켜주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나를 초대한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바람에 대한 사시나무의 나뭇잎의 반응과 좀 비슷하다. 하나의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화시키고 활기를 주는 **영**의 권능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한편, 동일한 **영**이 또한 모든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고 심정을 각성시키며 유익한 활동에 활기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매 순간 영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면, 그리고 이 동일한 **성령**이 또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람을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시나무의 연약한 나뭇잎들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서로를 비비며, 우리를 세상에서 선(善)을 위한 더 큰 힘의 일부로 만든다.

모니터의 창간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조용한, 집합적인 기도들이, “시간의 침침한 복도에 울려 퍼지고, 소리의 파도, 심장박동의 선율로 전진하여, 한 강단에서 다른 강단으로, 한 심장에서 다른 심장으로 진동해 나아가서, 마침내는 진리와 사랑이 하나의 의로운 기도로 합쳐져 인류를 감싸고 결합시킬 것이다”(The 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and Miscellany 189 쪽)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함께 하십시오. 커다란 바위이든, 시내 버스의 좌석이든,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으십시오. 영의 장대한 존재와 권능의 전망을 들이 마십시오. 모니터에 실린 기사들이 당신의 생각을 잠비아에 있는 어느 친구, 일본에 사는 어느 이웃,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의 어느 직장동료와 달도록 하십시오. 바람, 신성의 영의 영감이 당신의 마음을 겸손한, 소리 없는 기도의 곳으로 움직여가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연합된 기도의 권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